

# 共 ZONE MAGAZINE

## 태블릿PC와 만나다

태블릿PC 및 스마트폰으로 공감매거진 <共ZONE>을 구독하세요



ios용



Android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재한외국인을 위해 발간하는 소통매거진  
<共ZONE>을 이제 앱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ios용 버전은 앱스토어에서, Android용 버전은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共 ZONE

2013 AUTUMN NO.31





# BLUE POST

〈共ZONE〉이 보다 알차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 아론 오 싱 Aaron o sing 01

광주 북구 대촌동 • 필리핀

저는 종종 출입국 사무소에 방문합니다. 그때마다 챙겨왔던 〈共ZONE〉 덕분에 멀게만 느껴졌던 출입국 사무소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 고맙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재한 외국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어 지루하지 않아요. 다음 호부터는 재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소감 등을 직접 글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본 생생한 이야기가 소개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Minsan ay bumisita po kami sa opisina ng Imigrasyon. At sa tuwing nakikita ang 〈共ZONE〉 na nakalagay sa opisina ng imigrasyon ay naramdaman kong naging mas malapit kung kayat napakaraming pasasalamat namin. Simula sa unang pahina hanggang sa huling pahina nito, ay hinding hindi nainip sa pagbabasa sa mga kinakailangang inpormasyon at mga salaysay ng mga dayuhang nakatira sa bansa. How about sa susunod na palabas ng pahayagang ito ay mismong magsalaysay sa inyong mga karanasan at mga damdamin sa inyong pamumuhay sa pagtira sa Korea? Sa inyong mga salaysay ng mismong karanasan ay maging mas interesado ang lahat.

## 신동혁 Donghyuk Shin 02

인천 중구 선화동 • 한국

한눈에 보기에도 단란해 보이는 가족이 표지 모델로 나와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알렉세이 군 가족의 기사를 보고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외국 국적 동포가 많다는 사실도 새로 알게 되었어요. 재한 외국인 150만 명 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가 동포들도 진심으로 포용하고, 보듬어야 하지 않을까요? 해외 동포에게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共ZONE〉이 앞장서 주세요.

It was nice to see a happy family being used as the cover model. I was able to realize for the first time from Alexey's article that there were so many foreigners who were homesick. As a nation with 1.5 million foreign residents, we must be able to embrace them with genuine heart. I hope that 〈共ZONE〉 will take the initiative in attracting interest in our foreigner friends.

## 에드문드 Edmund 03

경기 구리시 수택동 • 호주

인천에서도 5월 20일에 멋진 '세계인의 날' 축제가 열렸군요. 구리 지역에서 열린 축제에서도 세계 요리도 맛보고, 각 국의 전통의상도 뽐낼 수 있는 파티 분위기가 낫겠쎄. 그날 다양한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이 모였는데 서로 인사할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共ZONE〉에서 국적별로 회화를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I see that Incheon also held a 'Together Day' festival on May 20. Even in the festival held in the Guri area, we were able to taste food from all over the world and see their traditional costumes. On that day, we had foreigners from various countries and so I thought it would be nice to know at least how to say hello in their languages. I would like to see 〈共ZONE〉 introduce conversations in various languages so that we can greet each other in the future.

## 올가 페도리 Ольга Федори 04

전남 여수시 여서동 • 러시아

저희 가게에 손님이 〈共ZONE〉을 두고 가신 덕분에 처음 보게 됐어요. 알차고 훈훈한 이야기가 많아 좋는데 특히 익산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누엔티빛타오 씨 이야기가 인상 깊네요. 한국에서는 공무원 되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당당하게 취업에 성공하셔서 축하드려요. 들을수록 재미있는 재한 외국인의 직장 이야기, 앞으로도 많이 실어주세요.

Я впервые узнал о книге <共ZONE>, благодаря тому, что посетители оставили её, уходя из моего магазина. Рассказы были хороши- познавательны и трогательны, особенно впечатлила история Нуэнтитпиттао, работающей в мэрии г.Иксана. Мы слышали, что трудно пройти экзамен в Корею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служащего, поэтому с гордостью поздравляем вас с его сдачей! А также, желаем в будущем слышать ещё больше интересных историй об иностранцах, работающих в Корею.

## 마야 유리에 마야구리 05

충남 홍성군 홍성읍 • 일본

'친절 바이러스' 칼럼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렇게 친절하신 분들이 많다니 같은 동료로서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직원들의 친절 사연 하나하나가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 역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은 지나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親切ウイルス」のコラムはおもしろかったです。出入外国人政策本部にこんなに親切な方々が多いとは同じ同僚としてやりがいも感じて、幸せです。職員の親切一つ一つが私の人生に美しくて豊かな感動を与えました。私もやはり私が手伝えることは度が過ぎずに、分かち合いを実践しながら生きていきます。

### COVER STORY

#### 뿌리 깊은 한국문화에 매료된 세 친구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보러 가을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는 Colin Brown(미국, 고려대)과 빛 고운 한복의 맵시를 볼 때마다 반한다는 Mahin K.Atiq(파키스탄, 세종대 대학원), 그리고 한식이 입에 맞아 편식하는 법이 없다는 Wei beibeil(중국, 중앙대 대학원)과 같이 개성 만점의 글로벌 인재들이 모인 한국! 뿌리 깊은 우리의 전통에 감동하는 이들은 문화 장벽을 뛰어넘어 우리 곁 가까이 있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 CONTENTS

- 02 Blue Post 독자에게 온 편지
- 04 공존의窓 스페인의 'Merce Festival'
- 05 Eitor's Message

### SPECIAL THEME

- 06 THEME INTRO 한국 전통의 힘 삶을 꽃피우다!
- 08 THEME SITE '아동태권도교실' 프로그램 현장
- 10 THEME GUIDE 귀화제도 및 국적취득 안내
- 14 THEME INTERVIEW 새마을학 석사 학위자  
록사나 악터 & 윌리엄 파체코 씨
- 18 THEME SCENE '창덕궁 달빛기행' 현장
- 22 나의 취업성공기 외환은행 개인고객부 채지영&양지희 씨
- 24 Dream 충전소 다문화가정 2세 손한풍 군
- 26 GO! 골목산책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
- 31 한국생활가이드 긴급상황 안내 전화번호
- 32 K-Food 특공대 유학생 3인방의 파전맛 체험
- 34 만나고 싶었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 수여자
- 38 WOW 출입국탐방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 42 친절 바이러스 친절한 대한민국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 44 출입국 Hot-Line 난민과 신실
- 46 출입국 News 3분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식
- 50 출입국 Q&A 귀화 신청 자격
- 51 Thank you Letter 내 이야기를 들려준 선생님께

〈共ZONE〉을 애플에서도 만나보세요!



ios용 Android용



기간 〈共ZONE〉 2013 가을호 통권 제31호 비매품 |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 발행일 2013년 10월 | 발행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Tel 02-2110-4019 | Fax 02-2110-0372 |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kr | 기획 및 디자인 (주)네브파트너스 Tel.02-2038-7700 | 인쇄 문덕인쇄 Tel.02-462-8980



음력 8월 15일 밤, 마을 여성들이 한데 모여 손을 맞잡고 풍년을 기원하는 전통민속놀이 강강수월래. 동근 보름달 아래서 동근 원을 그리며 함께 뛰고 다양한 몸짓으로 불거리를 만들어 냅니다.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이웃과 이웃 사이의 정을 느끼는 강강수월래 놀이처럼 스페인의 'Merce Festival'에서는 200년 넘게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전통놀이 인간탑쌓기 'Castellers'가 연출됩니다. 이웃간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할 목적으로 100~200명이 참여하여 커다란 인간탑을 쌓는 스페인 민속놀이 Castellers는 집중력과 균형, 그리고 무엇보다 멤버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한 놀이라고 합니다. 어느 민족이든 서로에 대한 믿음과 화합은 그 사회 발전의 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무너지지 않는 신뢰의 탑을 쌓아가겠습니다.

사진 제공 Flickr user Jbru89

전통문화를  
함께하는 것,

진정한  
공존의 시작입니다

True Coexistence Begins  
with Shared Cultural  
Heritage



가을은 모든 것이 풍성한 계절입니다. 곡식은 무르익고 청명한 하늘은 유난히 높습니다. 게다가 음력 8월 15일 한국의 전통 명절인 중추절(仲秋節)까지 더해진 가을이야말로 사계절 중 '풍성하다'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共ZONE〉 가을호 특집도 '한국의 전통문화와 함께하는 재한외국인'으로 풍성하게 꾸며 보았습니다. 다문화가정 2세대들이 씩씩하게 태권도를 배우는 교실, 외국인들이 휘영청 보름달 아래서 수백 년 된 전통유적을 답사하는 현장, 그 옛날 어머니들이 콩을 맷돌에 갈아 만들었던 녹두빈대떡 시식체험을 한 유학생들까지. 한국문화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태어나고 자라며 익숙해진 내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습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재한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한국의 생활문화를 배우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있음도 국가적 자랑이지만 더욱 고무적인 것은, 오랜 역사를 품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스스로 배우고 익히려는 재한외국인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화가 지닌 힘은 매우 크며 무궁무진합니다. '진정한 공존'을 위해 곳곳에서 열심인 150만 재한외국인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풍성한 가을수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정동민

Autumn is a season of abundance. Harvests ripen, and the fair skies seem loftier than ever. Autumn is also the season of Korea's traditional holiday Chuseok (or "hangawi", meaning the great middle of autumn), celebrating the year's great harvest.

This autumn issue of 共ZONE is abundant with stories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taking part in Korea's cultural heritage. Second generatio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demonstrate their courage as they learn Taekwondo. Under the full moon of autumn, foreigners explore our historic sites that breathe our nation's history. Study abroad students experience the taste of Korean mung-bean pancakes, made and grinded from our millstones handed down through generations. We captured the scenes of cultural experience felt through the five senses.

Picking up a new culture of an accustomed place and people is no easy matter. To see many foreigners adapt to the Korean society—its language and culture, is surely a source of our national pride. What is more inspiring, however, is that more and more foreigners are proactively seeking to learn about and acquaint themselves with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The power of a single culture is inexhaustible. There are 1.5 million foreigners across Korea today, working towards a true coexistence, in their respective places. Korea Immigration Service, as always, will serve as the helping hand of each and every person working for this true coexistence. On behalf of our organization, I wish our readers a most abundant harvest this autumn.

Thank you. 🍁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Jeong Dong-min

# AMAZING KOREA!

# BLOOMING LIFE!



## 한국 전통의 힘! 삶을 꽃피우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와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다문화가정 '아동태권도교실'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아이들의 구슬땀에서, 새마을운동을 통해 당당한 삶을 되찾고 고국으로 돌아가 'We can do it!' 정신을 전파할 영남대 새마을학 석사 과정 유학생, 록사나와 윌리엄의 다부진 눈빛에서 한국 전통의 힘이 살아 나고 있다. 가을호 특집에서는 150만 재한 외국인의 삶을 활짝 꽃피우게 해주는 한국 전통의 매력을 되짚어 보며, 한국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재한 외국인들을 위한 귀화제도 및 국적 취득 관련 정보를 한자리에 모았다.

01 **THEME SITE**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아동태권도교실'

02 **THEME GUIDE**  
귀화제도 및 국적 취득 안내

03 **THEME INTERVIEW**  
영남대 새마을학 석사 과정 유학생

04 **THEME SCENE**  
'창덕궁 달빛기행' 현장

# 다문화가정 자녀 '아동태권도교실' “태! 권!” 태권소년·소녀의 희망 발차기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태권도는 성장기 어린이에게 체력을 증진하는 즐거운 신체활동이자 건전한 가치관과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도 한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와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동태권도교실' 또한 학습 목표를 그에 둔 것처럼 말이다.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고 자랑스런 '태권소년·소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학습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글 황지혜 사진 서찬우 촬영협조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도전! 태권 소년소녀

“태권! 압!” 기합소리가 복도까지 찌렁찌렁 울렸다.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하 영통사회복지관) 내 체육관에 모인 어린 친구들이 우렁찬 기합소리에 맞추어 날렵하게 움직인다. 태권도의 기본인 '태극 1장'의 앞서기에 이어 앞굽이, 아래막기, 몸통막기, 몸통지르기, 앞차기까지 이어진 동작이 완벽하진 않지만 제법 그럴듯한 폼새다. 지난 4월 3일 개강한 영통사회복지관 '아동태권도교실'을 통해 매주 일주일에 두 시간씩 땀 흘리며 배운 성과다.

“이 수업의 아이들은 모두 다문화가정 2세 자녀들이에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학업증진지원과 함께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사무소와 영통사회복지관, 경희대학교 지구봉사대 등 뜻있는 기관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김경수 수원출입국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장이 프로그램의 개설 배경을 친절히 풀이해 주었다. 개강에 앞서 수원출입국사무소는 2013년 3월 14일 경희대학교 지구봉사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수원출입국사무소가 태권도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추천하고, 영통종합복지관이 태권도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교 봉사단원이 프로그램 진행을 맡기로 했다. 많은 가정에서 태권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 비용이 전액 무료이며, 나이 제한도 두지 않았다. 이렇게 뜻을 모으니 학부모와 학생들이 제 발로 찾아왔다. 현재 영통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아동태권도교실 외에도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원어민 영어수업, 일대일 멘토링 학습지도 등에는 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다.

## 동기 간 정이 쌓이는 사랑의 교실

아이들 얼굴이 서로 닮았다 싶었는데 교실 내 근기반장을 맡은 만형 영수(초등학교 4)와 막내 승민이(7)가 형제, 기합 소리만큼은 남자들을 제친 여장부 나은이(초등학교 2)와 벌써 태권도 2품의 실력자인 진형이(초등학교 4)가 오누이 사이란다. 가끔은 태권도를 배우는 건지 게임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서로 장난도 치고, 뛰어 놀기도 하다가 사이가 상해 다투기도 한다. 그러다 땀 흘리며 실력을 겨루면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웃어버리는 게 천상, 아이들이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이들도 격파나 멋진 폼새도 배우겠죠. 하지만 태권도의 진정한 매력인, 동작에 깃들여 있는 예절과 정도(定道)의 정신을 전해주고 싶어요.” 2학기부터 태권도 수업을 이끌고 있는 박수진 씨(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2학년)의 소박한 바람이다.

“우리 사범님 태권도 폼새가 정말 최고예요. 수업에 빠지지 않고 배우면 제 폼도 조만간 멋있어 지겠죠? 저도 사범님을 닮아 씩씩한 태권소년이 될래요.”

영수와 아이들은 어제보다 더 높이, 더 힘차게 하늘을 향해 발차기를 날린다. 어느새 우리 아이들의 몸에 밴 태권도가 훗날 자랑스러운 추억으로, 한국인의 긍지로 심어지길 바라본다. ☺



## “한국 제1의 자랑은 태권도조”

세계 속에서 널리 퍼진 태권도를 볼 때면 가슴이 뛰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태권도를 시작해 2008년도까지 시범단 및 품새 선수로 활동했고, 한국태권도여성연맹 2위 입상 등 수상성적도 많아요. 태권도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그리고 자신감도 기를 수 있었죠. 제 경험처럼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도 기르고, 체력단련에도 도움이 되는 태권도를 꼭 배웠으면 좋겠어요.

박수진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2학년)





국적취득, 쉽고 편리하게!

# ‘대한민국 귀화 어렵지 않아요’

Naturalization Made Easy!



재한외국인 증가와 더불어 귀화나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적동포 및 결혼이민여성들이 늘고 있다. 그 신청자 수는 최근 5년새 연평균 2만 4,000여 명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한 민원과 질의가 쏟아지는 가운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재한외국인을 위한 귀화제도 및 국적취득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본다.

As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is increases, more and more foreign-national Koreans and marriage immigrants are aiming for naturalization and nationality acquisition. The number of such applicants has increased to 24,000 yearly applicants in the past five years. With increasing civil inquiries on these processes, Korea Immigration Service aims to be a dependable guide for those desiring to becom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fast and accurate service.



##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자 증가

과거 우리나라의 단일 국적주의 통념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국적취득을 주저하던 해외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위해 법무부는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 (2010년 5월 4일 국적법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첨단과학기술 분야 등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외국국적자의 국적취득이 2013년 8월말 현재 39명에 이르고, 선대의 공로가 아닌 자신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업적을 바탕으로 특별귀화 허가를 받은 자도 탄생하는 등 복수국적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된 국적법은 출생으로 얻는 복수국적자 외에 '글로벌 우수인재, 결혼이민자, 해외 입양인, 65세 이상 고령동포' 등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적취득 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국적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 방식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 한 것.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복수국적자는 2만 6,846명에 이르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Revised Nationality Act leads to increased multiple nationality holders

Up until recently, foreign talent experienced hesitation in nationality acquisition, due to Korea's convention of the single nationality principle and the pressure to give up foreign nationality upon receiving Korean nationality. To address the concern of attracting foreign talent, the Ministry of Justice modified the Nationality Act on May 4th, 2010, thereby allowing multiple nationalities to a limited scope.

With this change, the number of outstanding foreign talent

in specific fields (ex. science and cutting-edge technology)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has increased to 39 persons this year (August, 2013). Moreover, special naturalizations were given for the first time, awarded for the contribution to the adv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rather than the service of the ancestors and forefathers. As such, the increase of multiple nationality holders is a clear trend.

The revisions in the Nationality Act go beyond multiple nationality holders and also apply to "global advanced talent, marriage immigrants, overseas adopters, and aged compatriots aged 65 and above". Such persons may now hold multiple nationalities without abandoning their foreign nationality, under the oath that their rights stemming from the foreign nationality not be exercised during sojourn in Korea. Figures from the last quarter of 2012 indicate 26,846 multiple-nationality holders in Korea, with a steady increase of figures expected.

## 철저한 국적 업무 절차 실행

중국 또는 미주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취득 선호 경향 및 결혼이민여성들의 국적취득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귀화허가 신청자 수가 최근 5년 연평균 2만 4,000여 명을 넘어섰다. 2011년에는 귀화허가 적격 심사(필기시험, 면접심사) 업무도 적체되고 있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 간소화 및 민간귀화면접관제 도입 등 제도를 개선 하였고, 지난 해에는 민간면접관을 확충하는 등 국적 심사인력의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적취득(귀화/회복) 절차 안내

순서	내용	업무처리기관	
1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출입국관리사무소
2	심사	1. 증명서류 및 거주지 현지 조사 2. 필기시험/면접심사/ 실태조사/ 신원조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3	허가통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통지서 받음	법무부
4	기본증명서 발급	귀화(회복)자의 기본증명서 3통 발급(아래 방문기관에 제출)	가까운 시청·구청·읍·면사무소
5	외국국적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원래 가지고 있던 본 국적을 포기하거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취득 허가된 날부터 1년 이내)	본국적 주한 대사관 / 출입국관리사무소
6	주민등록신고	주민등록증 신청서 제출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7	외국인등록증 반납	주민등록증 발급 30일 이내 외국인등록증 반납	출입국관리사무소



한편 지난 해부터는 국적취득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지문·얼굴 정보를 이용하여 일명 '신분세탁' 여부를 검증한 이후 국적취득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타인명의 국적취득 기도자를 적발하는 등 철저하게 국적 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Providing nationality service via thorough procedures

The yearly average of naturalization applicants has increased to 24,000 in the past five years. This is a result of the changes in nationality preferences of Chinese and US-national Koreans and increased nationality acquisition demands among marriage immigrants, among other factors.

In 2011, applications for requested screening tests for naturalization eligibility (written exam and interview) began to accumulate. To address this problem, Korea Immigration Service initiated system improvement, including minimized fact-finding search, establishing a civilian naturalization interviewer system, etc.

Since last year, efforts continue to address the lack of nationality evaluators by increasing the number of civilian interviewers.

On the other hand, starting 2012, nationality is granted following the provision of fingerprints and face information, to check for 'identity laundering'. By exposing those who acquire nationality with false (stolen) identities, among other efforts, KIS is practicing thorough nationality evaluation procedures.

### 연평균 1만 5,000명 이상 귀화

귀화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인 2011년 1월 10만 명

을 넘어섰으며, 2012년 말까지 총 12만 6,040명에 이른다.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2000년까지 연평균 34명에 불과했지만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만 396명으로 급증하였고, 최근 5년간은 연평균 1만 5,901명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편입되고 있다.

귀화허가 유형별로 살펴 보면 2012년 전체 귀화자 중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자에 의한 간이귀화가 7,733명(73.3%)이며, 특별귀화자가 2,521명이다. 특히 2012년에는 개정 국적법에 신설된 우수인재로 인정되어 국적을 취득한 자가 15명이나 되었다.

또한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필기시험은 매 회당 3,000여 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대규모로 실시하였으며, 시험대상자 9,990명 중 62.8%에 해당하는 6,271명이 응시하였고, 응시자 중 69.6%(4,366명)가 합격했다.

한편 국적회복자는 2008년 이후 하향세를 보이다 2011년도부터 개정 국적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65세 이상 고령동포의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2011년 2,265명, 2012년 1,987명으로 2010년 1,011명 대비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 국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 과거에는 복수국적자로 우리 국적 이탈자가 우리국적을 선택하

#### 귀화와 국적회복은 어떻게 다른가요?

귀화는 대한민국 국적을 한번도 가져본 사실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는 귀화요건을 충족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적회복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나 복수국적자중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했던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 How is naturalization different from nationality restoration?

Naturalization refers to the process in which a person, who has never possessed Korean nationality, comes to acquire Korean nationality after fulfilling the necessary requirements stipulated in the Nationality Act. On the other hand, nationality restoration refers to the process in which a person, 1) who had once possessed Korean nationality and loses it or 2) who had possessed multiple nationalities and had renounced the Korean nationality, regains the Korean nationality.

는 자보다 월등히 많았으나 개정 국적법이 공포된 2010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국적 선택자가 늘고 있다. 이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효과로 판단된다.

### Around 15,000 naturalized yearly

As of January 2011,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acquired Korean nationality reached well beyond 100,000, increasing to 126,040 at the end of 2012. Up until 2000, the yearly average of naturalized persons was merely at 34 persons. However, between 2001 and 2012, the figure rose to 10,394 a year, with the figures of the last 5 years indicating an average of 15,901 naturalized persons entering as new members of our society.

A close look at the increased naturalizations indicate that simple naturalization of marriage immigrants (by way of marriage to a Korean national) make up 73.3% (7,733 persons) of the total naturalizations of 2012, and 2,521 persons acquiring special naturalization. It is notable that in 2012, 15 persons acquired Korean nationality through recognition of superior talent, made possible through the modified Nationality Act.

Furthermore, the written examination requirement was carried out in mass scale for around 3,000 applicants, three times a year. Of the 9,990 original applicants, 62.8% (6,271 persons) participated in the exam. Of these, 69.6% (4,366 persons) passed the exam.

While naturalizations have steadily increased, the number of naturalization restorations has been on a decline since 2008.

However, with the revised Nationality Act in 2011, aged compatriots over the age of 65 became eligible to maintain multiple nationalities. With the legislative change, the number of restored nationalities was 2,265 in 2011 and 1,987 in 2012, indicating an increase from 2010 (1,011 cases). A major cause is analyzed to be increased foreign-national compatriots in North America (U.S., Canada) restoring their Korean nationalities.

In the past, multiple nationality holders abandoning Korean nationality far exceeded those who chose Korean nationality over the foreign nationality.

Yet, beginning the end of 2010 (revised Nationality Act), those in the latter category are increasing, as a positive effect of the legislative change. 🌟

### 국적취득 전에 꼭 알아두세요!

#### 귀화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 **일반귀화** 대한민국 민법 상 성년(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거주했으며,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가지고, 품행이 단정하며 한국어능력(읽기, 쓰기, 말하기) 및 우리나라 역사, 문화에 대한 기본소양이 있다면 일반귀화의 신청이 가능하다.

● **간이귀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관계가 단절된 사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만 19세 이상)인 사람 등도 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 **특별귀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입양 당시 미성년자 포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의 우수 인재인 경우에는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일반귀화요건에 적용하는 국내 거주, 민법 상 성년 및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제외된다.

#### 국적 관련 민원 전국에서 편리하게

귀화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자격요건에 따라 준비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접수 전에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 접속 또는 민원콜센터(국번없이 1345)에 전화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7개 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국적업무를 접수 운영 중이다. 그 외 국적판정, 국적선택·국적보유 신고 등 기본적인 국적업무는 국적업무를 취급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적 관련 사실증명 발급 등 관할구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는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어디든 신청할 수 있다.

#### 기본소양 평가 테스트가 있어요

법무부는 다양한 검증 절차를 통해 국어능력과 한국사회 이해 등 귀화 신청 외국인의 기본소양을 심사한다.

● **필기시험**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식 문제가 20문항 출제된다. 2번의 응시 기회가 주어지는데, 2회 응시에도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적신청 건은 불허된다. 또한 필기시험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 **면접심사** 2회에 걸쳐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심사한다.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등은 면접심사에서 제외된다. 국적취득 신청을 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면접이 실시되며 부·모 또는 배우자를 동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자.

● **실태조사** 배우자와 정상적으로 동거하는지 여부, 불법취업, 생계유지능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신원조사** 본국 및 국내 체류하는 동안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신원조회 한다.

## 희망 찾았어요, 새마을학에서!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위한 NGO단체에서 일한 적이 있을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여자와 한국인 어머니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남자가 한국에서 만났다. 현재 영남대학교에서 새마을운동이론 및 실천을 전공하며 새마을학석사 과정에 지원한 룩사나 악터(Ruksana Akter, 방글라데시)와 윌리엄 파체코(William Edward Pacheco, 미국)가 그들. 각자 살아온 환경도, 새마을학을 배우게 된 계기도 다르지만 하나의 학문을 공부하며 더 나은 세상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 그들에게 한국과의 인연을 돈독하게 만들어준 새마을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글 안채린 사진 정우철



윌리엄 파체코  
William Edward Pacheco

룩사나 악터  
Ruksana Akter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70년부터 전개되어 온 새마을운동.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명맥은 21세기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농촌개발사업 운동의 일환으로 출발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경이적인 발전을 이룩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6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한 새마을운동은 이제 자국의 경제적 부흥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는 새로운 사회개발 모델이자 도전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 발전과 변화, 내가 먼저 나서야

외국인이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그것도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알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은 어떻게 새마을운동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까?

**윌리엄** 어머니가 한국인이셨고, 저 또한 한국에서 영어 교사를 한 인연이 있지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 사회에는 미국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이렇게 단기간 내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데는 분명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새마을운동이라 생각했어요.

**룩사나** 3년 전에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서 한 학기 동안 한국사를 배우는 기회가 있었어요. 전공이 컴퓨터 공학임에도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한 과목을 들으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또 한국에 오기 전에 방글라데시에서 인권운동을 하며 여성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을 갖는데 관심이 많았던 차에 새마을운동을 배워 방글라데시로 돌아가면 본국 여성들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명맥은  
21세기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경제적 부흥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는 새로운 사회개발 모델이자  
도전의 또 다른 이름이 되었다.

**윌리엄** 한국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을 했고, 이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유례무이한 일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을 바라봤을 때 가장 매력적인 일이며, 새마을운동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마을학을 공부한 후 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새마을학을 전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룩사나** 인터넷이나 자료를 통해 한국의 도약적인 발전을 공부할 수도 있지만, 방글라데시의 낙후된 지역에 이를 적용하려면 직접 체험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새마을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과 근면함 배워

1년 6개월간의 영남대학교 새마을학 석사 과정은 수업을 듣는 것 외에도 많은 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기회를 통해 두 사람이 새삼 알게된 것은 한국인의 도전 정신이다.

**룩사나** 세 번의 체험 학습을 다니며 근면, 협동, 자조, 협동으로 대표되는 새마을운동의 개념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사회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발전을 해왔는지, 그리고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과 근면함에 대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미국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아웃 소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학 체험 학습을 통해 자국의 기반 산업 발전이 국가의 발전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느끼게 되었고, 한국의 발전이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룩사나** 방글라데시 기업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많은 사업을 위탁하려고 하는데 한국 기업은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고 정제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도전 정신이 모여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새마을운동이란?

한국에서 1970년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 초기에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배가운동이었지만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부터 도시, 직장, 공장에까지 확산되어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정부의 주도하에 국민의 자율적 참여로 이뤄 낸,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근대화 운동으로 평가 받는다. 최근 빈곤극복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새마을운동의 경험과 방법을 적극 보급하여 지구촌의 평화와 복지증진에 기여,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 영남대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 학과

영남대는 지난 2011년 11월,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을 설립,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새마을학을 보다 전문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로도 평가 받고 있다.

학과	전공	학위
새마을 및 국제개발학과	새마을운동이론 및 실천 전공	새마을학석사
		행정학석사
	국제개발협력 전공	국제개발학석사
		정책학석사
	산림자원 및 생태복원 전공	이학석사
		농학석사

### 새마을운동 이론 및 실천 전공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되어 성공적 사회개발모델로 인정받은 사회개발모델인 새마을운동은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 국제개발협력 전공

이론과 실무,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국제개발협력 분야 미래 지도인력을 양성하고자 개발되었다. '지속가능한 내재적 개발 원조 모델'의 창출과 확산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강조해 성공적인 국제개발협력모델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안목을 기르도록 도와준다.

### 산림자원 및 생태복원 전공

새로운 형태의 산림복원 기술교육과 마케팅을 통하여 영남대학교와 산림복원의 발상지인 경상북도의 국내외적 이미지 제고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산림녹화 경험의 전파로 훼손된 전 세계 산림생태계의 복원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 발전에 대한 욕심이 새로운 발전 이끌죠

3월부터 새마을학 과정을 시작하여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배우고 연구한 새마을운동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윌리엄** 새마을운동은 먼저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스스로 움직일 때에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건물을 세우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발전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배웠습니다.

**룩사나** 저에게 새마을운동은 보이지 않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새마을운동을 통해 지방이 발전하고, 그 영향이 모든 곳으로 퍼져 공장이나 사무실, 학교뿐만 아니라 도시까지 근대화운동으로 확대되어 한국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새마을학을 배워 발전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이들을 돕고 싶다는 룩사나와 윌리엄. 이들에게 새마을학의 핵심가치인 근면, 자조, 협동 중 가장 중요하고, 자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입을 모아 '협동'이라고 말한다.

**룩사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정부와 시민들 간의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이때 새마을학이라면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미국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미국의 정서는 '개인주의'로 대표될

만큼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가 노력하는 일은 별로 없지요. 그러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협동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룩사나** 방글라데시에서는 1980년도에 이미 비슷한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주고 지속적인 관심과 훈련을 통해 장기적으로 협력하여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윌리엄**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더군요. 물론 의지가 있다면 혼자서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죠. 그럴 때에 함께 힘을 합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희생에 대해 배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그만 실천이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새마을학을 배우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또한 바뀌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새마을운동의 슬로건 'I can do it' 처럼 많은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새마을학을 공부하며 삶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계획 또한 바뀌었다.

**윌리엄**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제국적인 미국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죠. 또 새마을학에 대하여 배우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하기도 하고요.

**룩사나** 새마을학에 대해 배우면서 방글라데시에서 열악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하여 더 자주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오기 전 NGO단체에서 일하며 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당시 활동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지는 못했어요. 귀국 후 방글라데시의 환경에 맞게 새마을학을 적용시켜 저처럼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윌리엄** 저도 룩사나와 같은 생각입니다. 어머니가 한국 분이시지만 한국 문화에 대하여 깊이있게 접할 기회가 없어 한국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새마을학을 배우면서 어머니의 나라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미국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룩사나**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친구들과 인연을 맺은 것 또한 제 삶의 큰 변화예요. 각자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새마을학 석사를 마친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낙후된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놓치고 있는 이들에게 주체적으로 행동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열정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선 작은 일부터 바꾸어나가고 싶습니다.

새마을학을 배우며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겨서 즐겁고 행복하다는 룩사나와 윌리엄. 모두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꿈꾸기를 바란다면 웃는 이들을 통해 새롭게 태어날 새마을운동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여물어있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지난 9월 23일,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에 들뜬 표정의 외국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한국의 고궁을 밤에도 볼 수 있는 것은 흔히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빛으로 어지러운 도심 속에서 최소한의 불빛만 켜 둔 창덕궁은 고요하기까지 했다. 보름달이 뜨는 무렵에만 진행되는 행사의 특성상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만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한국문화 체험이 될 '창덕궁 달빛기행'은 사전에 매를 통해서만 관람이 가능하다. 창덕궁의 달밤을 거닐며 전문가의 해설을 듣는 달빛산책코스, 다과를 곁들인 전통예술공연 등 다채로운 구경거리 속,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고궁은 어떤 모습일까?

#### 달빛과 청사초롱의 불빛을 벗 삼아

본격적인 달빛기행 행사를 시작하기 전, 관람객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창덕궁의 밤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다.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 앞에서 전통식으로 수문장 교체식이 거행되면서 수문장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대문 앞은 금세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전통 복식을 입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접수를 마치고 난 뒤 편리한 관람을 위해 5개 조로 나누어 입장을 시작했다.

돈화문 앞에서 해설자의 설명을 듣기 위한 이어폰을 착용하고 청사초롱을 건네 받은 이들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자신의 손에 들린 등불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이들을 위해 해설자가 간략하게 청사초롱을 설명했다. "청사초롱은 불빛이 없었던 시절, 궁에서 밤을 밝히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청'은 파란색을, '사'는 붉은색을 의미하며, '초롱'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음양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조그만 불빛 하나에도 이러한 철학을 담은 것이죠."

화려한 밤의 불빛에는 익숙하지만, 청사초롱과 달빛에만 의지해 걷는 밤길이 낯선 관람객들은 '청사초롱'이라는 단어를 해설자를 따라 발음하며, 현존하는 서울의 다리 중 가장 오래되어 돈화문과 진선운을 이어주는 금천교를 넘었다. 어둠에 제법 익숙해진 그들의 눈 앞에 커다란 공간이 펼쳐지며, 달빛기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고요한 고궁 거닐며 한국의 전통 느껴요! 가을밤, 달빛 품은 창덕궁

고즈넉한 가을밤, 은은하게 퍼지는 보름달과 고궁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멋진 관광지가 된다. 평소에는 보기 힘들었던 고궁의 밤은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2010년 시작되어 올해로 3년 째를 맞이한 '창덕궁 달빛기행'은 티켓오픈과 동시에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행사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국인과 분리해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성할 정도다. '창덕궁 달빛기행'을 따라 고요한 달빛과 함께한 창덕궁의 풍경을 둘러보자.

글 안채린 사진 서찬우 사진제공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진흥팀

#### 창덕궁 달빛기행 안내

달빛기행은 상반기 3~5월과 하반기 8~10월, 보름달의 시기에 맞춰 개최되며,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외국인의 경우 신청 기간 내 사전 E-mail (palacemoonlight@gmail.com)에 접수한 뒤 확정메일을 받은 후부터 예약이 진행되며, 참가비는 3만 원이다. 전문 해설자의 이야기를 통해 창덕궁의 역사·문화·조경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야간기행과 전통예술공연 관람 및 전통 다과 시식 등으로 진행된다.

문의 : 문화진흥팀 02-2270-1234, 1238  
02-2270-1237(Eng)



**왕이 걷던 길을 따라서**

궁안에서 가장 먼저 발걸음한 곳은 인정전(仁政殿). 창덕궁의 정전으로서 왕의 즉위식, 조회, 외국사신의 접견 등이 이루어지던 업무공간으로, 조선조에는 8명의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올리기도 했다. 대한제국의 상징인 오얏꽃이 용마루 부분에 장식된 것이 특징이다. 인정전은 인자한 정치를 펼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임진왜란 때 전소되었다가 선조 때 복구공사가 시작되어 광해군이 즉위하던 1607년에 다시 건립되었다. 인정전의 넓은 마당은 조회가 있었던 뜰이라는 뜻으로 조정(趙庭)이라 불린다. 조정에 있는 품계석은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정조(1777년) 때 세운 것인데, 관리들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여 조정 혁신을 위해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세운 것이다.

“품계석은 문무백관의 위치를 나타내는 표시로 각각 18품계를 새긴 것입니다. 한국에는 방향과 그에 맞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품계석을 세웠습니다. 동편에는 문관이, 서편에는 무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마주보고 서서 임금님의 말씀을 들곤 했습니다. 임금님께서 걷던 길을 함께 걸어볼까요?”

왕이 걷던 길을 따라 동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달빛 아래 아름답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함을 간직한 낙선재가 모습을 드러냈다. 낙선재는 현종 13년(1847년) 후궁 김씨의 처소로 지어진 뒤 덕혜옹주(고종의 고명딸)와 이방자 여사(고종의 아들 영친왕 비)가 거처하는 등 주로 왕실여성의 거주공간으로 활용된 곳이다. 화려하게 오방 색으로 칠을 한 다른 건물들과는 다르게 상중에 왕후들이 기거하던 곳이라 하여 단청도 하지 않은 소박한 모습이 멋을 더하는 공간이었다.

창덕궁의 내부에는 곳곳에 특별한 나무들이 많은데,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회화나무는 종종 학자의 기개에 비유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대한민국을 상징하기도 하는 소나무는 그 모양과 크기 때문에 창덕궁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손꼽힌다. 그 촘촘함과 단단함 때문에 창덕궁 내의 많은 건물 기둥이 되기도 했다는 소나무가 달빛 아래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상중의 왕후들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소담스러운 꽃들을 심어놓은 낙선재 뒤로 나있는 계단을 올라 함양문을 지나자 이번에는 창덕궁의 후원이 보였다. 왕의 휴식처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전체 면적의 6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크다. 서울의 도심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서, 관람객들은 달을 보며 각자의 소원을 빌어본다. 함양문의 다음 장소인 부용지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천원지방)’는 우주사상에 따라 조성된 왕실의 연못이다. 왕의 휴식처인 후원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외국 사신을 영접하고 연회를 베푼던 경복궁의 경회루와는 달리 왕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곳이다. 이 부용지에서 잠시 관람객들은 가야금 연주를 들으며 고즈넉한 부용지를 감상하며 조선의 임금만이 누렸던 풍경을 가슴에 담아보았다.

**아름다운 가락 속 느껴보는 한국의 전통**

왕의 무병장수를 축원하는 의미로 통 돌을 깎아 세워 만든 불로문을 지나 효명세자가 일만 양반가의 집을 모방하여 궁궐 안에 지은 120여 칸의 집인 연경당에 들어섰다. 고종과 순종 시절에 연회 공간으로 사용된 이곳에서 한국을 찾은 귀한 손님에게 전통 음료인 대추차와 떡, 한과를 대접하는 다과시간과 전통예술공연을 감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우리가락이 생소할 법도 한데 외국인들은 거문고와 판소리 ‘춘향가’의 한 구절, 국악 관현악인 ‘아리랑 판타지’ 등을 감상하며 우리가락에 흠뻑 빠져 들었다.

낮에 창덕궁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관람객들은 낮과는 사뭇 다른 밤의 창덕궁의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물결 위로 달이 빛나며 부서지는 부용지의 풍경과 발을 디딜 때마다 자박자박 하는 소리가 들리는 모래 바닥은 낮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거기에 소곤소곤 옛이야기를 들려주듯 전문가의 해설까지 더해져 창덕궁 곳곳의 숨은 이야기까지 전해 들으니 그 매력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임진왜란 때 국가의 업무를 보던 경복궁이 불타버린 이후 사실상의 ‘정궁(正宮)’ 역할을 해오고,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 두 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동안 달빛을 따라 거닐며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었던 달빛기행은 오래도록 관람객들의 기억 속에 한국만의 정취로 남을 것이다. 🌕



대한민국을 상징하기도 하는 소나무는 창덕궁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손꼽힌다. 그 촘촘함과 단단함 때문에 창덕궁 내의 많은 건물 기둥이 되기도 했다는 소나무가 달빛 아래 더욱 아름답게 빛난다.



**“한국궁궐의 야경에 푹 빠졌어요!”**

“아들 결혼식 때문에 어제 한국에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직접 프로그램 예약을 해 주어서 오게 되었는데, 검은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부용지가 가장 인상 깊네요.” (툼, 페타)  
 “저는 아주 전 한국에 와서 제주도, 부산, 경주 등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한국은 음식이나 문화 등이 영국과 많이 달라 모든 게 신기했는데, 오늘 ‘달빛기행’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한국적인 체험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이안)

오른쪽부터 툼 포시스 / 페타 포시스 / 이안 포시스 (영국 런던)

행어나 언어가 불편한 고객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을 세라 24시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는 채지영(결혼이주여성, 36) 대리와 양지희(귀화여성, 35) 대리. 1년 전, 한낱한시에 외환은행에 입사한 동기이자 같은 팀에서 근무하게 된 기막힌 인연에 한 가지 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인으로 귀화하여 새로운 인생의 2막을 올렸다는 점! 그녀들을 만나 치열했던 취업 준비와 한국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꿈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적극적이고 당당한 자세로!



### 외국인근로자의 자립을 돕는 '이웃집 언니'

“오늘은 전화가 조용한 걸 보니 고객들이 저희가 인터뷰하는 날인 줄 알고 있나 봐요, 하하.”

하루 100여 통이 넘는 문의전화가 온다는 채지영 씨와 양지희 씨의 유창한 한국말이 어색하지 않다. 어느덧 한국 생활 7년 차인 채지영 대리는 태국에서 나고 자랐다.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 후 한국에 정착했지만 모든 것이 낯선 타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다. 우연한 기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외국인 인력센터 업무를 맡은 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본국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커졌고 지난해 7월 외환은행의 개인고객부에 지원, 직접 고객들을 만나게 되었다.

3년 전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양지희 대리도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며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평일에 일하느라 은행에 올 시간이 없고,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어 해요.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아 할 이유죠.”

채지영 대리와 양지희 대리가 근무하고 있는 외환은행 개인고객부에

는 그녀들 외에도 3명의 외국 국적 출신 직원들이 더 있는데, 팀원 모두가 영업점과 외국인 고객 간의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돕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직접 지방까지 찾아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취재 다음날인 일요일에도 구미, 김천 지역의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팀원 전체가 구미로 이동한다고. 두 사람 모두 입사한 이후로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본인들의 도움으로 자립하는 고객들을 마주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보람도 크고 확신도 커졌다.

### 외국인 유학생의 최대 경쟁력은 '한국어'

두 사람 다 오래 전부터 귀화를 결심할 만큼 언어능력과 한국에 대한 사랑이 뛰어났지만 취업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심만큼 쉽지 않았다. 자신들의 취업 준비 경험에 미루어 외국인 유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은 '언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그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을 몸소 겪어왔던 탓이다.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지 않고 지내는 고객도 많아요. 저희들 또한 언어의 장벽을 몸소 느끼고 공부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한국어를 공부하는 일이 얼마나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잘 알기에 고객을 만나면 늘 한국어를 배우라고 추천하곤 합니다. (양지희 대리)”

“저희는 업무적인 도움 외에도 고객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사의 역할도 자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채지영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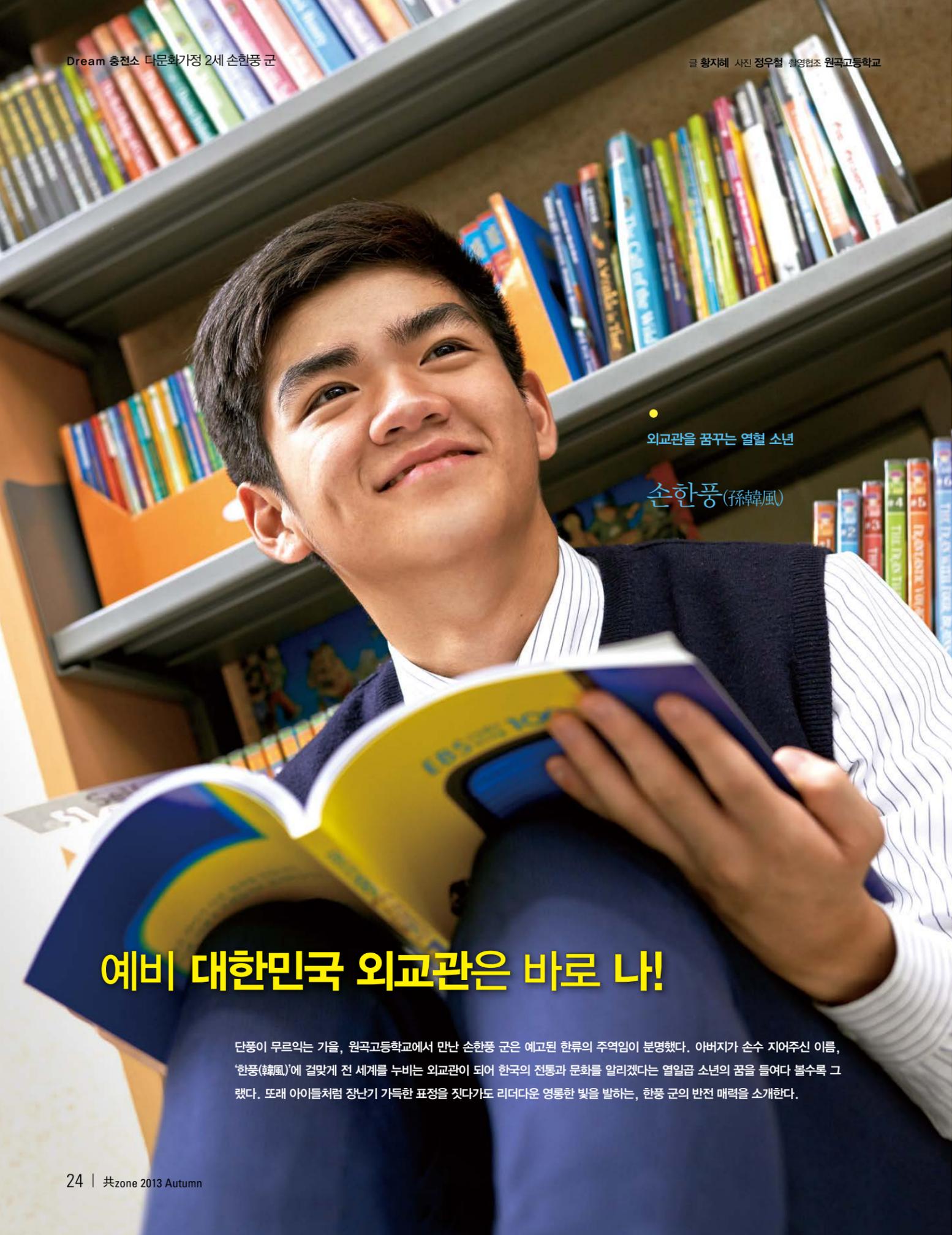
외로운 타국에서의 생활에 지친 외국인근로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채지영 대리와 양지희 대리. 그녀들의 일에 대한 열정과 고객을 향한 진심이 수줍은 미소만큼이나 싱그럽다. ☺



**취업 성공 노하우 살펴보기**

**진실함을 무기로** ● 이력서를 쓸 때에는 서툴더라도 성심 성의껏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한국어가 서툴다고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참고한다면 진실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죠. 주변의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료 강의를 적극 활용하라** ● 요즘에는 지역별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의가 많아요. 저희들 또한 구청이나 문화원 등을 통하여 무료로 한국어 강의도 듣고, 많은 분들을 만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직접 강의를 들으러 다니면 언어뿐만 아니라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 보세요.



외교관을 꿈꾸는 열혈 소년

손한풍(孫韓風)

## 예비 대한민국 외교관은 바로 나!

단풍이 무르익는 가을, 원곡고등학교에서 만난 손한풍 군은 예고된 한류의 주역임이 분명했다. 아버지가 손수 지어주신 이름, '한풍(韓風)'에 걸맞게 전 세계를 누비는 외교관이 되어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겠다는 열일곱 소년의 꿈을 들여다 볼수록 그랬다. 또래 아이들처럼 장난기 가득한 표정을 짓다가도 리더다운 영롱한 빛을 발하는, 한풍 군의 반전 매력을 소개한다.

### 내 이름은 손한풍! 예고된 한류 주역

'한국의 바람'을 뜻하는 한풍(韓風).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는 지금, 이름에 고이 그 뜻을 새긴 손한풍 군(원곡고등학교1). 학교에서는 이미 스타로 통하는 한풍 군은 지난 8월 17일에 방송된 EBS <장학퀴즈>에 친구와 팀을 이루어 출전, 전국의 다문화가정 친구들과 견주어 출중한 외국어 실력과 지성미를 뽐냈다. 한 문제 차이로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지만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다고.

"낮선 TV 출연이라 긴장이 많이 됐지만 우승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복 입는 순서같이 잘 아는 문제에서 정답을 못 맞춘 게 너무 아쉬워요. 꼭 재도전하고 싶어요."

포기를 모르고 매사 진취적인 한풍 군의 성격을 단번에 알아 차릴 수 있었다. 한풍 군은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베트남에서 생활했다. 호치민 시내 한인유치원과 한인초등학교를 다니며 베트남에서 한글을 배우고, 한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란 덕분에 2006년 한국에 입국해 일반 중학교로 편입을 해서도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밝고 씩씩한 성격 덕에 친구들도 금세 사귀었다.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등 3개 국어에 능통하고, 배운 지 꼬박 1년 된 무에타이(태국 전통무예) 실력도 상당한, '반전 매력의 소유자'라고 송옥사 담임 선생님이 일러준다.

"중학교 때는 전국체전에 나가 동상을 받을 정도로 운동신경도 뛰어납니다. 또 성실한 태도와 봉사활동에도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는 따뜻한도 지녀 미래가 기대되는 학생입니다."

### 원곡고에 입학한 건 큰 행운

'다문화 1번지'라 불리는 안산의 원곡동. 다문화거리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이 눈길을 끄는 원곡고에는 현재 한풍 군 외에 9명의 다문화가정 2세 학생이 수학 중이다. 올해 교육부 지정 자율학교로 선정된 원곡고는 '다문화 이해'과정을 개설했다. 3월 부임한 김송미 교장의 남다른 교육관과 추진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이들이 국제적 감각을 키우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를 갖게 하는 데 '원곡고'만한 교육환경은 없다고 자부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주역인 아이들 성장에 보탬이 되는데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곡고는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서 백년지계(百年之計)의 자세를 갖춘 교육 현장이다. 다문화가정 학생 중 한국어 기초가 부족한, 단 두 명의 학생을 위해 맞춤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고, 가야금 등 전통악기 학습을 진행하는가 하면 다문화 교육 전용공간인 '어



울룸'에서는 1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통 다도교실과 예의범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산·시흥 지역 내 다문화 가정 및 다문화지역센터 공부방을 찾아가는 봉사활동 등 살아 있는 다문화 교육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풍 군 역시 이런 특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 늘 감사한다.

### 소년, 외교관의 꿈을 품다

방송 출연 중에 '외교관'의 꿈을 당당히 밝힌 한풍 군. 어머니와 함께 미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해외 여행을 다니면서 어디에서나 능력을 인정받는 외교관의 당당한 모습이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꼭 10년 뒤에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겁니다. 베트남에 급증한 이주 한인들을 돕는 일에 제가 적격 아닐까요? 최근 해외 순방을 마치고 온 박근혜 대통령께서 베트남을 '사돈의 나라'라고 가깝게 칭하신 것처럼 베트남과 한국이 더 가까운 사이가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거예요. 우선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수려한 문화와 음식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지성과 용기, 열정을 이미 속 닮은 한풍 군. 앞으로도 모두를 친구로 만드는 따뜻함과 소년 같은 순수한 미소, 어떤 환경에서도 해답을 찾는 지혜와 끈기를 잃지 말길 응원해본다. ☺



A modern city,  
demonstrating the recent 100-year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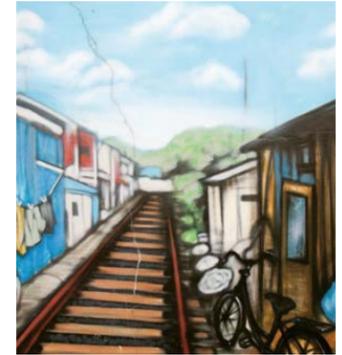
**GUNSAN** 100년의 시간을 품은 근대도시, 군산

전라북도 군산을 처음 찾는 이는 낯선 풍경에 의아할 수도 있다. '근대'역사박물관, '근대'건축관, '근대'미술관까지 일본풍 건축물이 유난히 눈에 띄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산이 품고 있는 시간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낯설은 곧 서글펐던 100여 년 전의 기억에 대한 위로로 바뀐다. 과거를 잊지 않으려 찾는 이들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해주는 군산의 골목에는 제각각 다른 매력이 숨어있다.

It has been decades since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but the pains and sufferings of our ancestors have not been forgotten, and Gunsan is one of the key witnesses to the terror and tragedy that ensued after the invasion of the Japanese. For instance, the Gunsan Port, situated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the city, was forcibly opened on May 1, 1899 due to its geographically advantageous location that facilitated the transport of various supplies. After seizing the national sovereign rights in 1910, the Japanese took over dozens of farmlands around the area and the rice they

plundered amassed into a mountain at the port. It wouldn'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with the opening of the port, the history of Gunsan was forever changed as a 'plundering area' that took from its people, under the control of the Japanese. In an effort to change history and take back the city, thousands of Gunsan citizens went out on to the streets with torches and the national flag, Taegukgi, in their hands and cried out 'Manse' in resistance to the Japanese.

With knowledge of such history, how will people visiting Gunsan view the city? Let's look around the city of modern history.



Double the memories you take home with the Stamp Tour



Every time you visit an iconic tourist site in Gunsan, you can receive a stamp on a special notebook. Once you receive the last stamp at the Modern Architecture Center, you will have a special chance to send a postcard to a friend or a family member, inviting them to visit the city. What's so special about this postcard? It's a free admission ticket to the Modern History Museum! So, double the memories you take home with you by inviting that special someone to Gunsan.

### The Future Is Dependent on the History

Walk a few steps from the Gunsan Port and you will come into a full view of the buildings built in the Japanese architectural style that were formerly the Japan 18 Bank, Joseon Bank, Gunsan Tax Office and Mizu Firm among others. The Japan 18 Bank (present-day Gunsan Modern Art Museum) and Joseon Bank Gunsan branch (present-day Gunsan Modern Architecture Center) wer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engaged in economic pillag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former Gunsan Tax office and Mizu Firm (Mizu Café), a Japanese trade company, also bear a dark history. In 2008, Gunsan City transformed the historical remains around this area into cultural infrastructures for tourism, exhibitions, performances and art through the Belt Development Project Involving Modern Industrial Heritage Reconstruction.



The buildings in Japanese style were reconstructed and newly opened as the Modern Art Museum, Modern Architecture Center and Mizu Café, and tourists began calling this street as the 'street of modern history and culture.' The Modern History Museum, situated at the center, encourages visitors reflect on the past history of Gunsan and develop a positive outlook on the future of the city through its slogan, "The Future Is Dependent on the History."

The Modern Cultural Heritage Belt connects the Gunsan Port area with Wolmyeong-dong. A creative cultural space, 'Yeoinsuk,' formerly 'Sambong Yeoinsuk (Sambong Inn),' transformed into a cultural space that signifies 'neighbors coming together to realize their common aspiration.' Tiles were placed on a utility pole and murals were painted on the old walls to turn the area into a work of art. This is



### Public bicycles that add more fun to your trip

The unmanned public bicycle rental system has been installed in three areas: Modern Architecture Center, Eunpa Lake Park and Geumgang Wetland Ecological Park. The best news is that anyone can travel around the city on a bicycle as you don't need to be a Gunsan citizen to use these services. So, why don't you cycle your way from the Gunsan Port to the Geumgang Wetland Ecological Park while enjoying the cool sea breeze?

not end of the project to rebuild the area. The road in front of Yeoinsuk leading to Dongguk Temple is scheduled to be turned into a 'history exploration trail.' In Gunsan, history is not considered as merely a compilation of past events; it has been made into a medium for education and communication.

### Gunsan in Films

The 1998 film 'Christmas in August,' starring Han Suk-kyu and Shim Eun-ha, was widely loved for its story of pure love, and this romantic movie which is considered a classic was shot in Gunsan.

In the movie, Han Suk-kyu played the owner of 'Chowon Photography Studio,' and this particular filming set has been preserved by the city to attract tourists. One side of the wall is covered in pictures of the scenes from the movie such as when the main characters

met and parted as well as the scene where Han Suk-kyu took an ID photo of Shim Eun-ha,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memorable scenes in the movie. The camera and chair used for the scene have been kept to remind people of the story. There is another area that served as a filming location for a famous film and it's Hirotsu House in Shinheung-dong. This is where 'The General's Son' was shot in the 90s and 'The War of Flower' in 2000s. The house built in Japanese style is characterized by the beautiful garden of flowers, trees and a manmade pond, the steep rooftop and the Dadami room. The old wooden passageway lined with numerous rooms produces a strange noise every time a person walks upon it. While taking a look around this luxurious house, visitors can't help but wonder how many people had to shed sweat and toil in order to maintain this house.



### The Railroad Tracks Continue Even Though the Trains Have Stopped

Walk about 20 minutes from the Japanese-style house and you will arrive in Cheolgil Maeul (Railroad Village) in Gyeongam-dong. A railroad track can be seen in between the rows of shacks. When a train slowly passes through the area along the narrow railroad, the residents hasten themselves to quickly

retrieve their belongings they had left on the tracks and tell their children to be careful. The hustle and bustle can be seen twice a day with a passing train... no, it could be seen back in the day before 2008 when the trains stopped passing through the area. Now, visitors are mesmerized by beautiful landscape created by the railroad tracks in Gyeongam-dong, especially because time seems to have stopped here. They also fall in awe of the quietness and tranquility before the break of dawn and the way the railroad tracks seem to go on forever under the heat of the sun in the afternoon, and they will want to walk hand in hand with a significant other along the tracks while watching the sunset. Although time seems to have stopped with the train operation terminated, the lives of the people have continued on: people lay out their laundry to be dried on a sunny day; cats drift along the rooftops; and the sounds of the TV and housewives making dinner break the silence. For the few households remaining in the area today, this is their home, and for those who are visiting the area for the first time will be captivated by the scenery that seems like a reminder of the past. 📍

### Variety Flavor of Gunsan



**A special bread that you must try!** • Gunsan is also famous for 'LEE SUNG DANG,' the oldest bakery in Korea, which has been in operation since its founder Lee Sung-dang opened the bakery shop in the old Izumoya Bakery Shop (1920) after the liberation. It is so popular that there are even restrictions enforced on weekends with a limit of 10 pieces of bread per customer, but this only keeps them coming back for more.

Address: 12-2 Jungangno 1-ga, Gunsan-si



**Generous meal of grilled fish** • When you go to the Gunsan Port, you shouldn't leave until you try the grilled fish while enjoying the seascape and breeze because it is grilled to perfection and it tastes wonderful with white rice. Remember, the grilled fish is the main menu, which is something you may forget as you taste the 15 different kinds of side dishes

including Doenjang-jjigae (soybean paste stew). Address: 'Milbat' 48-6 Jangjae-dong, Gunsan-si

## 알아두면 응급 해제~ 긴급할 땐 이 전화번호!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아두면 좋은 긴급전화번호와 각종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생활정보전화번호! 나라마다 서비스 전화번호도 다르다는 사실, 아셨나요? 한국의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체류외국인과 외국인의 안전한 거주와 여행자의 쾌적한 여행에 큰 도움이 될 전화번호는 꼭 알아두세요.

### 긴급전화번호

낮선 한국에서 뜻하지 않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외국인들은 적절하게 당황하게 된다. 이럴 때 전화로 관련 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수호천사라도 같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미리 외워두자.

범죄신고	112 (경찰청)
화재·구조·구급·재난신고, 응급의료·병원 정보	119 (소방방재청)
마약·범죄종합신고	1301 (검찰청)
사이버테러	118 (한국인터넷진흥원)
밀수 사범 신고	125 (관세청)
해양 긴급 신고	122 (해양경찰청)
국내외 여성 가정/성폭력 등 긴급구조보호 및 상담	1366 (여성긴급지원센터)

### 체류 및 출입국 관련 전화번호

외국인등록 및 체류허가, 출입국 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 재한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 전화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한 간편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재한외국인의 체류 생활을 돕고 있다.

한국체류 생활정보 및 출입국 정보, 안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여권 정보, 상담	02-2110-2114 (외교부 여권과)
영주권 정보, 상담	02-2110-2114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불법체류자 출입국사범 신고	1588-719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다누리콜센터

1577-5432

범죄신고

112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1345

영주권 정보, 상담

02-2110-2114



### 생활정보전화번호

한국에는 생활 편의정보를 안내하는 전화상담 서비스 체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외국어상담, 문자 상담, 수화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로 체류외국인의 행복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120 콜센터	02-120 (서울, 다산콜센터)
	032-120 (인천, 미추홀콜센터)
	031-120 (경기, 경기도콜센터)
	051-120 (부산, 바로콜센터)
다누리콜센터	1577-5432
전화번호 안내	114 (KT)
세계시간 안내	116 (KT)
일기예보 안내	131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관광정보 안내, 여행불편 신고	1330 (한국관광공사)
외국인근로자 고용 상담	02-6900-8000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근로 민원신고 및 상담	02-2110-7383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학교 정보, 상담	02-2110-6449 (교육부 학교정책과)
의료보험 정보, 상담	129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법률구조 정보, 상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 비 오는 가을에 생각나는 파전엔 막걸리가 딱! 함께 맛보니 좋지 아니한가

한국의 맛이지만, 세계의 맛이기도 하다. 누가 먹어도 그 맛에 단번에 빠지고 마는 부침개의 이야기다. 세계 어디에서나 비슷한 맛을 찾을 수 있어 익숙한 부침개는 막걸리와 함께 하였을 때 그 맛이 배가 된다. 한국의 맛과 멋을 사랑하여 평소에도 한국의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키다 미야코(일본, 22), 서보 크리스티나(헝가리, 23), 제르망 닐스(프랑스, 21)의 솔직한 맛 평가 현장을 따라가 보았다.

홍익대학교 어학원에 다니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 이들에게 전은 익숙한 음식이다. 한국에서 이미 먹어본 적이 있지만, 저마다 고향에 비슷한 음식이 있기 때문이다. 밀가루 반죽에 원하는 재료들을 넣고 부쳐먹는 일본의 오코노미야키, 과일, 잼, 초콜렛 등을 넣어 먹는 크레페의 일종인 헝가리의 팔라친타, 계란 반죽에 각종 채소와 고기 등을 넣어 부치는 오믈렛 등은 밀가루에 파와 해산물 등을 넣고 기름에 부쳐 먹는 한국의 전과 비슷한 고향의 음식이다.

일본에서 한국의 드라마로 한국의 문화를 많이 접했다는 미야코 씨는 막걸리를 먹기 전 두 손으로 잔을 받치고 건배를 외친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이에 있지만, 음식도 식문화도 많이 달라요. 한국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그 음식을 먹는 방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았죠.”

익숙한 것가라질로 파전을 집던 크리스티나 씨도 한국의 독특한 음식 문화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막걸리와 전처럼, 함께 어우러지는 음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맛의 조화뿐만 아니라 영양까지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생활이 올해로 3년째인 닐스 씨는 비빔밥이나 김치찌개 등 평소에도 다양한 재료가 듬뿍 들어간 한국음식을 즐긴다. 하나의 음식을 먹어도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은 것 같아서 속이 든든하다고.

한국 고유의 음식과 음식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 과연 찰떡궁합 파전과 막걸리는 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

### 막걸리와 파전, 궁합 점수는?

날씨가 추워지면 유독 노릇노릇한 전과 막걸리가 생각난다는 사람이 많다. 막걸리와 파전에는 단백질과 비타민B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함께 즐기기에 좋다. 특히 막걸리에 함유된 이노시톨, 콜린 등의 성분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파전에 들어가는 파와 양파 등도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곡물을 발효시켜 만드는 막걸리에는 상당량의 단백질과 당질, 무기질, 비타민 등이 들어있고, 파전에 들어있는 조갯살과 굴은 달걀과 같은 고단백 재료이다. 또 파는 비타민, 무기질 등의 성분은 숙취에도 도움을 준다.



키다 미야코  
한국생활 6개월  
(일본, 22세)

별점 ★★★★★

야채와 해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욱 맛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도 감자전을 파는 곳에 가서 감자전을 사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네요! 양파 장아찌와 함께 먹으니 간도 딱 맞네요! 막걸리와 함께 먹으니 더욱 부드럽고 음식의 풍미가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서보 크리스티나  
한국생활 1년  
(헝가리, 23세)

별점 ★★★★★

저는 녹두전이 가장 좋았어요. 감자전과 파전은 먹어본 적이 있는데, 녹두전은 처음이었거든요. 콩을 갈아 만들어서 담백하고, 고소해서 앞으로 즐겨 먹게 될 것 같아요.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막걸리는 아직 즐길 수 없지만, 자연에서 얻은 술이라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 친구들에게 추천해 줄래요.



제르망 닐스  
한국생활 3년  
(프랑스, 21세)

별점 ★★★★★

프랑스에는 하루에 한 잔 마시는 와인인 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막걸리 또한 발효주이기 때문에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또 한국의 전은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서 맛과 식감이 다양합니다. 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느껴져, 한번에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해산물과 파가 다양하게 들어간 파전이 제일 맛있었어요.



# 할아버지의 독립정신을 품으며 오늘부터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명순 선생, 고손 이영복 씨

**이명순(1872~1920)** • 1919년 3월 길림성 훈춘에서 훈춘대한민국회 조직, 만세시위를 주도하였으며 80여 개의 지회를 갖는 대규모 조직으로 발전시킴. 국민화군사령관으로 일본군과 수차례 접전을 벌여 많은 성과를 올리고 전사함. 1986년 독립장 수여.

### 공존 가족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3년 전, 2010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작은 할아버지(이기호)와 작은 할머니(이진숙)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중국 연길시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한집에서 함께 살았던 할아버지로부터 고조할아버지의 항일 운동 업적을 듣고 자라면서 가족 구성원 모두, 한국을 깊이 동경했어요. 오늘 또 다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한 것은 제게, 우리 가족에게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 공존 한국에는 언제 입국하셨으며, 당시 한국 생활은 어떠셨나요?

부모님의 권유로 2005년 3월 전남 순천에 있는 명신대학교에 유학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라도 사투리를 알아듣기 힘들었는데, 자주 듣다 보니 친숙해졌어요. 학업에 전념하다가 학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을 하기도 했죠. 그러다 2008년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었는데, 당시에는 특별귀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원망보다 할아버지의 독립정신을 훼손시켰다는 자책감에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공존 특별귀화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에 재입국하기 전까지 중국에서 관광가이드로 성실히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꿈꿔온 대한민국에서 큰 목표와 꿈을 품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3년 재입국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원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 공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한때 우리 가족은 일본군의 눈을 피해 산골로 거처를 옮기며 도피 생활을 하는 바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으며 힘들게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과거의 아픈 기억은 떨쳐 버리고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정신을 가슴에 간직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해 부모님께 빨리 효도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력서를 열심히 써야겠어요. 또 동포교육지원단이 제공하는 무상 기술교육을 받아 볼 생각이예요.

# 우리 가족의 명예 되찾은 날 꿈에 그리던 큰 선물을 받았어요

### 공존 김술로 선생의 후손 중에는 이번이 첫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례라 들었습니다.

입국 21년만에 특별 귀화 허가를 받게 되었고, 외증손녀인 고에까지 2대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어 더 기쁩니다. 평생 대한민국을 그리워만 하시다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생각이 가장 많이 나네요. 우리가 그분들의 소원과 한을 풀어 드린 것 같아 가슴이 복받쳐 오릅니다.

### 공존 한국에 언제 입국하셨으며, 당시 한국 생활은 어떠셨나요?

1992년 1월 단기 비자로 입국해 친척집에서 힘들게 생활하면서도 할아버지의 나라에 반드시 정착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20여 년간 자매들과 식당에서 곳을 일을 하며 생활해 왔어요. 정식 비자를 받지 못해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2010년 법무부가 '한·중 수교 이전에 입국한 장기 불법체류 중국동포 구제조치'를 실시해 온 가족이 합법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공존 특별귀화 심사 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국적 취득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요?

국내 체류 중에 할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유공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나서 1996년부터 할아버지의 독립운동 활동서류를 수집했고, 또 우리가 할아버지의 후손임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스스로 찾아야 했습니다. 부모님과 중국 친척의 증언, 그리고 유전자 감식 등을 거쳐 10여 년 만에 입증해 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공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게 되어 너무 다행이고, 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대한민국에서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살 수 있게되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한국에 온지 5개월을 갓 넘긴 제 딸 고에는 중국에서 3D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한국에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요즘 대학교 어학당에서 한국어도 열심히 배우는 중이고요. 저희와 같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이제 당당히 대한민국에서 꿈과 행복을 키워나갈 겁니다.



김술로 선생, 손녀 김정숙 · 김윤애 · 김윤분 씨 & 외증손녀 고에 씨

**김술로(19898~1976)** • 1920년 음력 7월경 경북 안동군 임하면에서 비밀결사조직 흡치교에 가입, 이듬해 자금 및 신도를 모집하는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음. 2012년 건국포장 수여.



## 독립유공자 후손 광복절 맞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 무상 기술교육 및 장학금 지급

법무부는 2013년 8월 13일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일제 강점기에 중국 등지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 외국국적 후손 17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국적 취득과 국적증서 수여식은 일제에 침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의 위국충절을 기리는 한편 외국국적으로 살아 온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으로서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상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받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 허가를 받게 되었다.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시행한 이래 매년 외국적 동포의 독립유공자 후손을 발굴하여 특별귀화를 허가해 왔다. 현재까지 총 854명의 해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우리나라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한편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비영리법인 '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과 협업 체제를 구축, 8월 15일부터 국내 체류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액 무상으로 전문 자격증 취득 시까지 기술교육(미용, 컴퓨터, 전기 등 98종)을 지원하고, 국내 재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취득 현황

(2013.7.31 기준, 단위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7	합계
163	122	157	120	111	89	75	17	854



38 WOW 출입국 탐방  
세종로출장소



42 친절 바이러스  
친절한 대한민국은...



44 출입국 Hot Line  
난민과 신설



46 출입국 News  
3분기 소식



50 출입국 Q&A

# 2013 AUTUMN Immigration Now

#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그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는 늘 민원인들로 북적인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 한복판에서 종로구와 중구를 비롯한 9개 구(區)를 관할하며 약 7만 명에 이르는 등록외국인을 관리하다보니 방문 민원인의 수가 하루 1천여 명에 이르고, 2013년 들어 지난 7월까지의 업무처리 건수도 10만 건이 넘는다. '달링' 23명의 직원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업무량이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세종로출장소의 상징성 때문에 직원들은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 세종로출장소의 상징성 그리고 특별한 의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바로 옆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2, 3층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원표(道路元標)와 불과 300여 m 거리이고, 지적에 청와대와 정부 중앙청사, 서울시청, 미국·영국·일본·중국·러시아 등 많은 외국공관과 국제단체, 외국계 기업, 국내 대기업 등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세종로출장소는 각국 대사관과의 업무관계가 빈번하고, 외국인 투자자나 사업가, 금융종사자, 종교인 등 다양한 자격의 외국인이 많이 찾고 있다. 기관의 지위뿐만 따지자면 출장소에 불과하지만 위치적으로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부에서 출입국행정을 펼친다는 상징성과 대표성을 내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세종로출장소인 것이다.

세종로출장소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업무를 개시한 것은 지난 5월 27일부터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있다. 이정두 소장이 세종로출장소의 상징성과 함께 서울글로벌센터 입주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서울글로벌센터 빌딩은 서울특별시에서 체류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비즈니스, 법률, 교육은 물론 국제교류행사와 각종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한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클러스터(cluster)를 구축한 국내 유일의 빌딩입니다. 따라서 세종로출장소를 방문해 일을 본 민원인이 서울글로벌센터를 찾아가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 등을 할 수도 있고, 서울글로벌센터를 방문한 외국인이 세종로출장소에서 출입국 관련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최상의 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종로출장소가 서울글로벌센터에 입주하여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단순한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외국인정책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융합행정을 통해 '체류외국인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계를 완성하였다'는 새로운 정책모델을 선도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등록외국인 7만, 승격 통해 업무영역 확대 필요

종로구 경운동 SK허브빌딩에 있던 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세종로출장소 직원들은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요일 일과종료 후부터 주말까지 출



### 세종로라는 상징성에 걸맞게 세종로출장소의 승격이 필요합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이정두 소장



이곳 세종로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우리나라의 중심이고, 주변에 고궁 등 유서 깊은 관광지 등이 많아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라면 한번쯤 둘러보는 곳입니다. 세종로라는 지명에 담긴 의미가 예사롭지 않은 것처럼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한 출입국행정기관이라는 상징성에 걸맞은 격조 높은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로출장소를 서울중앙 또는 서울북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칭)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관광서를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은 외국인들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꼭 들려야 하는데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국격을 가늠할 수 있는 인프라도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30년여의 공직생활 중에 대한민국의 중심, 세종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며 사랑하는 출입국 직원들과 인연이 되었던 외국인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근해 사무소 이전과 배치, 정리 등을 마무리하여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갔다. 23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사무소 이전이라는 대사를 치르면서도 차질 없이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세종로출장소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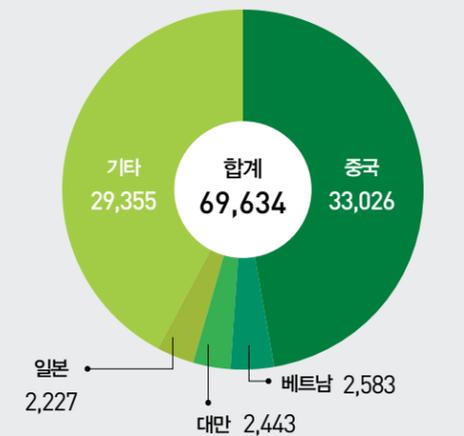
사무소 이전을 준비하며 누구보다 많은 신경을 썼던 신은성 계장은 “직원 모두가 동참하여 연초부터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준비부터 민원인을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정리까지 직원들이 단합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고생한 결과”라며 성공적인 사무소 이전의 공로를 동료들에게 돌리면서 “민원인들을 전보다 나아진 환경에서 모실 수 있고, 직원들 역시 부드러운 미소와 친절로 성심성의껏 응대하다 보니 민원만족도가 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1994년 1월 종로구 적선동 현대적선빌딩에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본소로 개소한 이래 2006년 5월에 출장소로 승격된 세종로출장소는 현재 종로구와 중구를 비롯한 9개 구(區)를 관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출장소’ 규모로 따지자면 세종로출장소의 현원 23명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등록외국인이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운데 5~6위 수준인 약 7만 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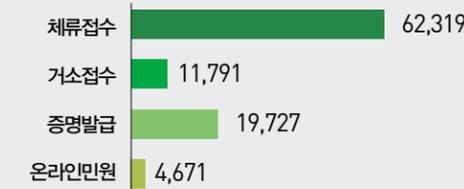
#### 국적별 등록외국인 현황

(기준 : 2013. 7. 31 단위 : 명)



#### 체류관련 업무 월간 실적

(기준 : 2013. 7. 31 누계 단위 : 건)



#### 실태조사 관련 월간 처리 실적

(단위 : 건)

구분	합계	귀화	영주	재외공관 및 본부지시	체류	사증
2013년 누계	605	229	76	130	133	37

\*현재 300건 미결



게다가 별관(실태조사실) 근무인원 4명을 빼면 이정두 소장을 포함한 19명의 직원이 세종로출장소 본소를 지키고 있다.

세종로출장소는 일반적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행하는 사회통합업무와 국적업무, 단속업무는 하지 않고 체류 및 사증업무, 증명발급, 실태조사업무만 처리하고 있다. 세종로출장소가 지닌 상징성이나 등록외국인의 수 등을 고려하면 승격을 통해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특정 외국인을 위한 특화된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국익에 이바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재로서는 출장소라는 지위와 한정된 인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 몸 힘들어도 고품격 출입국행정 펼치는 ‘국가대표’

“해마다 4~5% 정도씩 업무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민원업무 중 체류 및 거소업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루 1,000명 이상의 민원인이 세종로출장소를 방문합니다. 특히 관내에 34개 대학이 있어 외국인 유학생이 몰릴 때는 하루 1,300명 이상이 세종로출장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입니다.”

박수경 계장의 설명을 증명이라도 하듯 2층 민원실은 차레를 기다리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세종로출장소는 12개 카운터를 열어놓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만 대기인 수는 400명이 넘는다. 업무시작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민원인들의 발길은 업무종료 후에도 끊이는데 세종로출장소에서 그런 일상이 반복된 지는 이미 오래다.

“이전 시설보다 공간이 넓어지기는 했으나 워낙 민원인이 많다보니 시설적으로 여유롭다고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민원인들은 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이나 옥상 정원에서 여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 직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네요. 점심시간에도 민원업무를 계속 처리하기 때문에 식사를 마치면 바로 와서 교대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직원들도 식사를 하고, 민원인들을 덜 기다리게 할 수 있으니까요.”

무표정하게 차레를 기다리는 민원인들 사이에서 환한 미소가 돋보이는 박기형 반장이 세종로출장소의 현실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2013년 들어 지난 7월말까지 세종로출장소에서 처리한 업무는 10만 건이 넘는다. 겨우 23명의 직원이 사무소 이전까지 해가면서 감당하기에는 벅찬 업무량이다. 일과 사람에 치여 짜증을 내거나 설명을 소홀히 할 수도 있을 텐데 직원들은 누구라 할 것 없이 민원인의 물음에 성심껏 답하고, 차근차근 설명하며 민원인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있었다.

세종로출장소의 직원들은 몸은 힘들지만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며 만나는 외국인들을 통해 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느끼며 발전해나간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고품격 출입국행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믿음과 신뢰를 쌓아 가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국가대표’가 아닐까. 🇰🇷



# 친절한 대한민국은 우리로부터 시작된다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항상 밝은 미소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원들. 수많은 사연과 사례가 일어나는 사이 '큰 고민'을 해결한 민원인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칭찬의 소리도 들려온다. 마음의 서비스로 민원인을 만족시키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친절맨'을 소개한다.

## 민원인과의 약속, 꼭 지킵니다

외국인 직원의 외국인등록을 위해 담당 직원이 부산사무소에 오셨습니다. 8월, 새 학기가 시작되고 민원과 방문자 수가 3~4배로 늘어나 대기시간도 길어졌는데, 그 분들도 5시간을 기다리다 차례가 되었는데 필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해서 당일 업무처리를 해드릴 수 없었어요. 다음 방문 시에 대기시간 없이 처리해 드리겠다고 안내하고, 두 번째 방문때 신속하게 처리해드렸어요. 요즘 부산사무소를 찾는 민원인과 사무소 직원 모두 여유를 갖기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의 노력을 민원인들이 알아봐 주시니 힘이 나네요. '부산사무소 친절 도우미'가 여러분의 힘이 되겠습니다.

우하영 반장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종합민원센터)

##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큰 선물을 드립니다

캄보디아 여성과 국제결혼을 했으나 현지에서 혼인을 인정받지 못하고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채 귀국한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버를 꼭 빼 닮았지만 출생신고와 한국국적 취득 절차를 위해 유전자 감식 등 정확한 친부자관계 확인이 필요했죠. 며칠 후, 아이는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부인도 정식 혼인신고 후 결혼자격으로 변경,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 고향을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었다며 저를 직접 찾아와 인사도 하셨습니다. 제게 이번 일은 마음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또 민원인이 다가오게 한,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최대호 계장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 민원인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요

올해 1월, 보호소로 갓 입소한 중국인 여성이 '부친의 병세가 매우 위독하다며 빨리 출국시켜 줄 것을 눈물로 애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여권은 만료된 상태라 중국 당국에서 발급한 여행증이 꼭 필요했기에 중국대사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하기를 수차례, 조기에 출국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물이었을까요? 그녀가 퇴거한 후 보호소 내 인권항에서 감사편지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황교안 법무부장관님으로부터 책과 격려 글 등 뜻하지 않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 공무원이 참 따뜻하고 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영 계장 (청주외국인보호소)



##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언어는 친절!

외국인 아내의 혼인귀화를 앞두고 준비서류를 꼼꼼히 확인 중인 민원인을 전화 상담해드렸습니다. 긴 통화가 끝날 무렵, 제 이름을 물어 보시길래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업무 특성상, 국적 관련 증명발급 업무는 최종결과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여러 이유로 항의전화도 많기 때문이죠. 며칠 후 배우자 분과 함께 사무소에 오셨을 때 제가 먼저 그분을 알아 보고 인사를 드렸더니, 환하게 맞아주시더군요. 간간해 보였던 목소리와 달리 자상한 남편이셨고요. 대한민국 국적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친절하게 일하겠습니다.

김인혜 반장 (인천출입국사무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 신설 ‘인권선진국 코리아’의 품격, 난민과로 통하죠

지난 2011년 이후 시리아인 난민신청 접수만 326건. 한해 평균 1,000명의 난민신청이 접수되는 나라 대한민국. 20여 년 동안 난민에 대한 인도적 배려와 지위 보장을 위해 준비해 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난민과가 신설되었다. 난민과 직원들에게 달린 난민정책과 앞으로의 비전을 들어보았다.



지난 7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에 앞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6월 10일 난민과를 신설했다. 우리나라가 1992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인정업무를 규정할 이후 난민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를 출범시킨 것이다. 송소영 난민과 과장의 지휘 아래 난민과 직원들의 하루하루가 달랐다. “10월부터 우리나라가 UNHCR(유엔난민기구)의 집행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되면서 난민업무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 비중은 커졌습니다. 21세기에 들어 난민문제는 ‘글로벌 운명 공동체’로서 국제적 책임 분담이 요구되며, ‘인권’이라는 존엄적 가치를 지향하는 국격의 과제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황에 발맞추어 국제기준에 가까운 난민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발족한 난민과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 국제적 위상에 맞게 달라진 난민정책

국내 난민신청자 수는 최근 2년간 한해 평균 1,000명의 신청이 접수되고 있다. 민원접수부터 업무가 폭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난민과는 난민신청 절차부터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난민신청을 전국 사무소로 확대했으며, 난민신청 후 8개 거점사무소에서 면담과 심사결정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국가정황과 함께 난민 신청자의 진술이 심사에 중요한 기준이 됨을 감안해 면접심사 시, 녹음과 녹화를 통해 심사 근거를 기록으로 남기고, 난민신청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난민법 시행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재청착회·망난민제도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건립 외에도 난민정책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강화하고, 난민인정자뿐 아니라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위 보장을 위한 정책도 정비했다. 본부 난민과에 소속되어있는 난민전담 직원 11명과 소송전담 법무관 4명 등이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에 벅



차 보이지만 같은 꿈을 꾸고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며 나아가니 정금심 계장은 걱정이 없다. “각자 난민법, 소송, 국제규약의 전문가죠. 동료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이 많은 제도를 현실화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난민 업무의 특성상, UNHCR와 같은 국제기구와 협조는 물론이고 난민에게 사회·기초생활·교육보장 등을 제공하려면 고용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간간 긴밀한 협업체계가 중요합니다. 국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민간 단체의 도움도 절실하고요. 난민업무는 ‘협력’과 ‘공존’에 해결답안이 있네요.”

걸어온 길 보다는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아득하지만 난민과 직원들은 조급함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크고, 풍요로운 꿈을 꿀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한다.

“난민과는 어제보다 오늘, 더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난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우리 국민이 선진 인권국가의 시민으로서 난민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식 제고와 홍보 활동을 펼치는 것, 지금 난민과에 주어진 특령이자 비전입니다. 한국이 인권선진국이 되는 그날까지 ‘진격의 난민과’가 성큼 성큼 앞서 나가겠습니다.”



송소영  
난민과 과장

### “전문성 강화 통한 심층심사 실시”

“난민업무를 맡은 직원이라면 국제 정세 지식과 심층면접을 위한 통역 능력은 기본이고, 난민을 향해 가슴은 열려두되, 진정 난민이 맞는지 진실을 가려내는 정확한 눈과 균형적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난민과에 주어진 과제로 직원들의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난민법, 난민심사 기법, 난민소송, 난민관련 지침 및 국제규약 등 사이버 강좌를 하반기 개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전담인원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인성과 판단력을 두루 갖춘 난민과 직원들이 한국을 찾는 난민을 따뜻하게 맞이하겠습니다.”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강화 및 교육시간 확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해피스타트 교육현장 점검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7월 18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예방 등 개선된 '해피스타트'의 교육 현장을 두루 살펴보았다. 나아가 '해피스타트, 선배 결혼이민자의 멘토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새내기 결혼이민자 및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결혼이민자의 실화를 주제로 한 창작극 'Welcome, Guzal'을 관람했다. 그 자리에서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한국사회 적응문제 등 결혼이민자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인생의 선배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정동민 본부장은 "현장 중심의 정책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과 국민 중심 행정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현장을 자주 방문할 생각"이라면서 "국내 체류이민자가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원하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Strengthened Happy Start Program and increased instruction hours-  
Commissioner of KIS makes observation visit to Happy Start Program site

On July 18, Commissioner Jeong Dongmin visited the Suwon Immigration Office to observe the instruction environment of 'Happy Start,' which was recently improved to address the concerns of marriage immigrants suffering from domestic violence, etc. Participating in the 'Happy Start, Immigrant to Immigrant Mentoring' program himself, the Commissioner spoke with new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His visit also included the viewing of 'Welcome, Guzal,' a creative play based on the true story of a marriage immigrant. While listening to the marriage immigrants, who spoke out on their troubles, which included difficulties in the international marriage process and adapting to the Korean society, he also offered

kind advice and encour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a senior in life. In concluding his visit, the Commissioner stated his "determination to actively seek immigration policies that support immigrants, in order to prevent immigrants from becoming vulnerable members of our society". Furthermore, he expressed his wishes "to achieve a public-centered administration".

신속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 개청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포항출장소(소장 신현세)는 7월 25일 이전한 북구 창포동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개청식에는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박승호 포항시장, 고범석 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장을 포함한 행정기관 기관장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이전을 통해 포항출장소는 쾌적한 민원환경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민원인에게 양질의 출입국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Providing prompt and pleasant service  
Opening of 'Pohang Branch Office' under Daegu Immigration Office

Pohang Branch Office (Head Shin Hyunse) under Daegu Immigration Off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held its opening ceremony on July 25 at the new office in Changpo-dong, Buk-gu. Around 30 high-level government officials participated in the ceremony, including KIS Commissioner Jeong Dongmin, Mayor of Pohang Park Seungho, and Daegu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Head of Pohang Branch Office Ko Beomseok.

The new Office is now equipped with comfortable space and system, ready to provide quality immigration service to all visitors.

홍콩 입국 수속 더 빠르고 간편하게  
홍콩 입경사무처와 자동출입국심사 MOU 체결



우리 국민의 홍콩 가는 길이 더욱 편해진다.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홍콩 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입국 할 수 있게 된다.

정동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7월 30일 홍콩에서 홍콩 애릭 찬 입경사무처장과 '한-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양 이민당국은 양국을 오가는 여행객이 연간 약 100만 명 규모로, 5회 이상 빈번방문자가 연간 7,000여 명에 달하는 등 출입국 현황에 대처해 양국 간 출입국 편의 서비스 제공에 뜻을 모았다. 8월부터 시스템 연계 작업을 시작하여 11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빠르면 올해 12월에 자동출입국상호이용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Faster, easier entry process into Hong Kong-  
MOU of automated clearance service concluded with Hong Kong Immigration

Entry into Hong Kong for Korean nationals is now easier than ever! Beginning December of this year (expected date), eligible nationals may enter Hong Kong through the fast automated clearance system, without standing in line for face-to-face entry inspection.

On July 30, KIS Commissioner Jeong Dongmin and Director of Hong Kong Immigration Eric Chan met in Hong Kong to sig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Mutual Use of Automated Clearance Service'. With a yearly average of a million passengers, and with over 7,000 passengers traveling five times or more in a year from each side, the two parties agreed to respond to these trends through faster immigration service. The system connection was initiated in August, and with the trial operations in November, the mutual automated clearance service will be in operation in this December at the earliest.

K.I.S.Information

국적 취득 결혼이민자 7만 명 기록  
국내 외국인 배우자 첫 15만 명 돌파

우리나라 국민과 부부의 연을 맺은 외국인 배우자가 처음으로 15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배우자란 결혼이민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민자를 뜻하며, 외국인 배우자는 2009년 12만5,087명에서 2010년 14만2,654명으로 12.2% 증가했다가 차츰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이 6만2,000여 명으로 전체 41.7%를 차지한 데 이어 베트남(3만9,000여 명), 일본(1만2,000여 명), 필리핀(1만여 명) 출신이 뒤를 이었다. 중국 출신은 2010년에 비해 줄어든 반면 베트남출신의 비중이 1.5% 상승하는 등 중국 외 국가의 비중이 다소 늘어났다.

외국인 배우자는 약 4만여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에 이어 서울 3만 명, 경남과 인천에 각각 9,000여 명과 8,000여 명이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7월 현재 7만 3,452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5,000명 증가했다.

Number of naturalized marriage migrants reaches 70,000  
Number of foreign spouse residing in Korea reaches 150,000

The number of foreign spouses in Korea has reached 150,000 for the first time. The term foreign spouse refers to persons among marriage immigrants who have not naturalized. In 2009, the number reached 125,087 and increased 12.2% to 142,654 in 2010.

By nationality, persons of Chinese origin make up 41.7% of the total (62,000 persons) followed by Vietnamese (39,000), Japanese (12,000), and Philippino (10,000). While the percentage of Chinese foreign spouse decreased compared to 2010 (47.1%), other nationalities showed increasing trends, such as the 1.5% increase in Vietnamese foreign spouse. Currently, Gyeonggi-do has the greatest population of foreign spouse (40,000), followed by Seoul (30,000), Gyeongsangnam-do (9,000), and Incheon (8,000). As far as naturalized marriage immigrants are concerned, the number has increased by 5,000 as of July, reaching 73,452 in total.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시 태어난 날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에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8월 1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 강점기에 중국 등지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의 외국 국적 후손 17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 이래 매년 외국인 동포의 독립유공자 후손을 발굴하여 특별귀화를 허가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854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산하 비영리법인 '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 석동현)과 협업체제를 구축, 올해 8월 15일부터 국내 체류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액 무상으로 자격증 취득 시까지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국내 재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Born again as a Korean national-  
Descendants of independence patriots  
receive certificate of nationality in  
recognizing National Liberation Day

On August 13,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er Hwang Kyo Ahn) held a nationality certification ceremony for 17 foreign-national descendants of independence patriots, who inaugurated anti-Japan independence movements in China and elsewher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 granting of nationality for independence patriot descendants began in 2006. Since then, special naturalization for such descendants has continued every year. So far, a total of 853 persons have been granted the certificate of Korean nationality.

To support the stable settlement of independence patriot descendants, the Ministry of Justice established a cooperation system with the affiliated non-profit organization, Compatriot Instruction Support Service. Starting August 15, independence patriot descendants can

receive technical education until certification for free of charge. In addition, those who are enrolled in domestic universities will be eligible for scholarship.

보호외국인으로부터 감사편지 발견  
법무부장관, 우수 인권 외국인보호관 특별격려

지난 8월 29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보호외국인의 고충에 대하여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수행하여 정성이 담긴 감사편지를 받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청주외국인보호소 김문영 계장을 우수 인권 외국인보호관으로 특별격려했다.

김문영 계장은 지난 1월 근무 중인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입소한 보호외국인(여, 44세, 중국)이 부친의 병세가 위독하니 빨리 출국시켜 달라며 눈물로 애원하자, 자신의 민원인을 위해 중국대사관 담당자에게 수차례 전화로 협조를 부탁하여 보호외국인이 신속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왔다. 퇴거 후 보호소 내 인권함에서 그녀가 직접 작성한 감사편지가 발견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김문영 계장에게 격려 글과 함께 <경청>, <배려>라는 이름의 책을 선물했다. 이번 사례는 '우수 인권 출입국관리 직 공무원'에 대한 제1회 특별격려로,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성, 배려, 경청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감동을 준 법무부 공무원을 발굴하여 격려할 예정이다.

Thank you letter from a foreigner in detention  
Minister of Justice gives special recognition  
to a foreigner protection officer for  
outstanding recognition of human rights

On August 29, Minister of Justice Hwang Kyo Ahn delivered a special recognition of Officer Kim Moon Young for his excellent service in safeguarding human rights. Officer Kim received a thank you letter from a foreigner in detention at his post, Cheongju Detention Center, for his proactive service to help address the difficult situation in which the foreigner was placed in.

The foreigner (Age 44, Chinese), who had entered the Cheongju Detention Center on January, 2012, had pleaded in tears for her departure as her father (back in China) was in critical condition. Upon her plea, Officer Kim contacted the Chinese Embassy numerous times, asking for Embassy's cooperation for the protected foreigner's prompt departure. Following her removal, her thank you letter was discovered in the human rights mailbox of the detention center.

On receiving this news, Minister of Justice Hwang Kyo Ahn presented

his letter of encouragement with two books (Courteous Listening and Consideration) as gifts to Officer Kim. This was the first civil servant recognition for safeguarding human rights. The Minister of Justice plans to continue its search for its civil service officers, who touch those they serve with devotion, sincere consideration, and courteous listening.

열린 이민정책 토론의 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수요 포럼' 100회 맞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전문가들로부터 이민정책 관련 강의를 듣는 '수요 포럼'이 8월 22일 100회를 맞았다. 2007년 8월부터 시작한 '수요 정책포럼'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범(2007년 5월)과 함께 본부 직원들의 이민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시작됐다. 그동안 내부 직원의 발표 38차례, 스테픈 카슬 옥스퍼드대 교수와 국내 이민정책 관련 교수 및 전문가 등 외부 초청 강연 60차례 실시 외 이민관련 영화가 1차례 상영됐다. 100회를 맞이한 22일 포럼에는 <이민강국>이라는 책을 쓴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초청됐다.

법무부는 수요 포럼이 외국인 정책 총괄추진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pen immigration policy in an arena of discussion  
KIS reaches its 100th KIS Wednesday Forum

On August 22, 2013, the KIS reached its 100th KIS Wednesday Forum—a seminar-style forum led by immigration policy specialists. The Forum, which began in August 2007, was established to develop a deeper understanding of immigration policy of the KIS headquarters staff. As the KIS itself was established in the same year of 2007, the Forum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KIS. So far, the Forum has included 38 presentations by internal staff, 60 lecturers by professors and specialists in immigration policy, including Prof. Stephen Castle of Oxford University. The Forum also showcased an immigration-related film as well. For its 100th KIS Wednesday Forum, KIS invited Prof. Mo Jonglin of Yonsei University—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who authored Immigration Powerhouse.

The Ministry of Justice expressed its intent to continue the KIS Wednesdays Forum, which is evaluated to be supportive in strengthening Korea's immigration policy planning and policy execution.

출입국 매거진 <共ZONE>! 앱북으로 보세요

재한외국인을 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간하는 소통매거진 <共ZONE>을 9월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이용해 앱북으로 무료로 볼 수 있다. <共ZONE>은 지난 2006년 창간된 정부간행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유학생, 이주민 여성, 근로자와 관련된 정책, 현장, 사회 이슈들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으며, 재한외국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구글 'Play 스토어'에서, IOS 버전은 'App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KIS Magazine 共ZONE now available in  
application form!

Starting September this year, <共ZONE> will be available for download in application form for both smart phones and tablet PCs. Best of all, for free! The Magazine, which is published quarterly by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has been in publication since 2006 as a government publication. The Magazine is rich in content, including policy, field observations, and social issues that are relevant to foreigner tourists, students, marriage immigrants, and workers. The opinions and voices of the readers themselves are delivered as well. The android version is available on the Google 'Play Store', the IOS version on the 'App Store'.



# Q&A



**Q** 저는 올해 10월이면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지 3년이 됩니다. 아내가 한국에서 산지는 1년 반 정도 되는데 귀화신청이 가능한가요?

**A** 국적법 제6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요건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을 의미하며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 만료 전에 재입국하기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와 국내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서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는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그리고 귀화허가 신청자가 외국으로 출국한다고 할지라도 국적신청 자체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등록증상에 표기되어 있는 체류기간 만료일 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야하며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적신청 후 귀화 면접심사에 참석하도록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와 우편 통보서를 외국인등록 주소지로 보내게 되는데 국내에 체류하지 않아서 면접심사에 불참하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귀화허가 신청을 할 때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의 국적 담당자와 면접심사 일정 등에 대하여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October of this year will mark three years of my marriage. My wife is a foreigner, and she has resided in Korea for approximately a year and a half. Is it possible for her to apply for naturalization?

**A** According to Subparagraph 2 of Article 6-Paragraph 2 of the Nationality Act, a foreigner married to a Korean national may apply for naturalization only after 3 years of continued marriage status and after a year of residence (registered address) in Korea.

The domestic residence condition refers to the duration of legal sojourn in Korea following legal entry and alien registration. This duration also includes the duration of physical presence in Korea during the following conditions: 1) departing Korea with a reentry permit before the permitted sojourn period ends, and reentering within the permitted time period and 2) temporarily departing from Korea (reasons of denied extension of sojourn, etc.) and reentering within one month with a newly issued visa for entry.

The application for nationality remains valid, even if the applicant for naturalization departs abroad. However, the applicant must return before the expiry date of sojourn period, which is stated on the alien registration card. This is to assure that the sojourn period is extended within due time and to make sure that the applicant does not end up in an illegal alien status when the sojourn period expires.

Please note that messages on the date and details of naturalization interview will be sent by text message or mail, after your application is received. Such notifications are sent to the address of alien registration. Your presence abroad may result in failure to attend the interview, which is a disadvantage in the naturalization process. Thus, please make sure to consult the nationality officer at your jurisdictional immigration office, regarding your interview schedule, etc.

## 내 이야기를 들어준 고마운 선생님께

1월 2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온 지 18일이 지났다.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너무 겁이 났다.

그러다 내일이면 집에 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눈물이 났다.

드디어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올 때만 해도 '경찰'은 무서운 존재였다.

내가 불법취업자인 사실이 적발되어 법무부에 단속되던 그 순간,

법을 어긴 나를 때릴 것이라는 생각하고 겁부터 났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

단속반원들은 내게 차분히 말을 걸어왔고, 보호소에 온 이후에도

영양에 맞춰 짜여진 식단대로 식사를 하고, 잠도 편히 잤다.

특히 내 담당자였던 김문영 보호관은 항상 성실하고 진실한 태도로

나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도왔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주었다.

한국이 예절을 중시하는 나라이며, 한국인의 국민의식

수준이 높은 점을 흠모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나는 한국이 그리울 것이다.

대한민국이 영원히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2013년 1월 2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Wang(가명)

2013년 1월 28일,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발견된 보호외국인의 감사편지.

